

SK하이닉스, SK 계열로 공식출범

3월26일 이천에서 출범식 ... 최태원 회장 반도체사업 육성 의지 천명

SK하이닉스가 SK그룹의 일원으로 공식 출범했다.

SK하이닉스는 3월26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최태원 그룹 회장과 권오철 사장 등 20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어 <세계 최고 반도체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 출발을 선언했다.



SK그룹은 에너지, 정보통신에 이어 반도체라는 제3의 신성장축을 확보함에 따라 글로벌 경영 가속화와 수출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출범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조병돈 이천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격려사에서 “1978년 선경반도체를 설립하고 반도체사업 진출을 모색했으나 석유과동으로 꿈을 접었던 SK가 30여년이 지난 오늘 메모리반도체 세계 2위 하이닉스를 새 가족으로 맞았다”면서 “SK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반도체 사업에 투자해 더 크게 하이닉스를 키울 것”이라며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고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이상으로 도약하는 SK하이닉스를 꿈꿀 것”이라며 “세계 일류 반도체기업으로 거듭나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복을 나누는 SK하이닉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 신입사원 대표에게 SK그룹의 상징인 <행복날개> 배지를 달아준 뒤 권오철 사장에게 새로운 사기(社旗)를 전달했고 하성민 이사회 의장과 박태석 이천공장 노조위원장, 김준수 청주공장 노조위원장 등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식수 행사도 가졌다.

특히, SK하이닉스 이천 본사에 1박2일간 머물며 업무보고를 받는 한편 SK하이닉스 구성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Happy Talk Open Event>에 참여한다. 이천 본사 인근 호프집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여러 부서의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다.

SK하이닉스는 SK그룹에 합류함으로써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종합 반도체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PC기반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급격히 옮겨가는 정보기술(IT)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모바일 D램과 낸드플래시, CIS(CMOS 이미지 센서) 등 <모바일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재편해 현재 약 40%인 모바일 솔루션 비중을 2016년까지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룹 차원의 차이나 인사이드(China Insider) 전략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서 선두기업으로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시스템 반도체 사업역량 강화와 인재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등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도 구사할 방침이다.

1983년 현대전자산업으로 출범한 SK하이닉스는 1999년 LG반도체를 인수했고 2001년에는 하이닉스반도체로 사명을 변경했다.

세계 2위의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업으로 현재 전 세계 2만37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 매출 10조3960억원을 올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27>